

다산포럼

영감을 주는 다큐 세상 ‘어떻게 살 것인가?’



유지나 동국대 교수

다큐멘터리가 어느 때보다 흥미진진하게 다가온다. 영화 세상으로 만나는 다큐멘터리는 표현의 자유를 먹고 사는 예술의 힘으로 우리에게 또 다른 세상을 보여 주는 창이다.

다큐멘터리(documentary)란 라틴어 도큐멘툼(documentum)에서 나온 말로 교훈, 증명, 서류증서 등을 뜻한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문건처럼 사실 재현 영화로 제한하는 견해도 한때 존재했다. 그러나 오늘날 다큐 세상은 기발한 영감을 자극하는 다채로운 작품들로 피어나고 있다.

최근 본 다큐멘터리들은 ‘희망과 절망

을 오가며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문제를 탐구하게 만든다. 단출하게 한 갈래로 묶은 백남에 집편지를 안고 미소 짓는 제인 구달에게서 본받고 싶은 열정을 불러일으킨다.

전기 다큐 ‘제인 구달’(로렌즈 크나우어)을 보고 그 감흥을 글로 푸는 이 순간, 제인 구달은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에 ‘제인 구달 길’을 걷고 있으리라.

숲길을 걷다가 설치된 국방생 텐트를 보며, 탄자니아 야생생활을 회고하는 그녀의 모습은 동식물과 공존하는 생명사랑의 경험적 증명이기도 하다.

‘제인 구달’에서 만난 그녀의 삶의 역정은 산업화 도시생활에 불은 내게 또 다른 삶의 길을 보여준다. 23세에 아프리카 밀림으로 들어가 집편지 무리 옆에 고요히 앉아 있는 그녀의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다.

소설가 어머니만이 지지해주던 그녀의 꿈, 집편지와 함께하는 인생길이 하나의 창조체로 보인다. 가난한 소녀의 남다른 꿈과 막막함이 이제는 ‘희망의 씨앗’을 뿌리는 생명 평화운동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억압적인 북한과 황폐한 미국의 인디언 지역도 찾아가 자연과 함께하는 환경친화적 인생길을 전해준다. 특히 팔순의 나이에도 꽃꽂이로 허리를 세우며 밀림속을 걷는 그녀의 모습 자체가 희망을 준다.

연간 300여 일 이상 지구촌을 떠다니다 귀가해 위스키를 즐기며 여독을 푸는 모습은 노마드적 삶의 매혹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두 번째 남편의 죽음 후, 깊은 슬픔을 아프리카 밀림 속에서 홀로 치유하는 모습은 인간 역시 자연의 하나임을 일깨워준다.

“세계가 안전해졌을 때 은퇴할 수 있다”는 소신으로 지구를 떠도는 인생길을 가는 그녀는 환경운동의 록스타라는 별명을 실감하게 해준다.

‘못 생명체와 어떻게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는 ‘철의 꿈’(박경근)에서도 비장하게 전해온다. 오래전 고래를 신적 존재로 기리며 지내던 고래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남자의 내면 고백이 편지체로 들려온다. 무녀의 길을 찾아 떠난 옛 연인

에게 보내는 편지 내레이션은 우리의 산업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기억의 여정으로 접속한다.

바람에 나무끼는 천막 사이로 내비치는 파란 하늘, 은은하게 울리는 종소리와 독경소리, 그리고 고래 소리도 잡아내는 사운드트랙은 깊은 청각적 감흥을 준다.

한반도에서 가장 오래 된 고래를 그린 암각화는 댐 건설로 수몰되고, 거대한 조션소가 건설된다. 무모한 도전으로 보이던 중공업단지 조성에 등장하는 과거의 낯익은 얼굴들, 산업역군과 정치권력의 만남, 그리고 온갖 무장을 하고 일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과 일상에 접하게 된다.

반세기 산업사에서 ‘고래의 꿈’을 ‘철의 꿈’으로 바꾸며 자본 중심 인생길을 뒤는 변화 과정은 비애감을 동반한다.

고래와 겹쳐지는 거대한 배는 자연 생명체와 기계적 철의 물체를 대비시키고 오버랩시키며 자문하게 만든다. 우리는, 그리고 나는 어떤 인생길을 가는가? 라고.

그것은 또 다른 생명 중심 인생길을 창조해야 할 강렬한 시대적 경고처럼 운몽에 저리저리하게 다가온다.

청춘 특·특

나는 아직 어른이 되기가 두렵다



최진희 동신대학교 한국어교육학과 2학년

대학생이 되어 스무 살을 보낸 지금, 나는 아직도 ‘성인’이라는 두 글자가 어색하다. 스무 살이 넘었으면 성인인거지 뭐가 어색하냐는 이야기도 듣지만 ‘성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면, ‘어른’이라는 단어를 나에게 불이기에 어색은 두 어깨가 무겁다.

어렸을 땐 학교에 가면 무슨 일든 즐거울 것 같았다.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땐 어른이 되면, 대학생이 되면 무엇이든 해도 된다는 약속을 들어왔다. 나 또한 대학교만 가면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할 수 있을거야.’ 그렇게 생각했다. 그런데

왜 나는 아직 스스로에게 ‘어른’이란 두 글자를 사용하기 어려워하는가.

‘어른’이란 자기가 선택하고 행한 일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이다. 성인이 된 이후 도전과 노력을 일삼아왔던 나이지만, 내가 선택하고 선택받은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다시금 생각해보았다.

수능이 끝나고, 막 스무 살이 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있었다. “도전하라 청춘이여!” 청춘으로서 도전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면 정말 멋진 것이다. 하지만 그 도전에 앞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제 막 20년을 보낸 내가 말하면 건방진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감히 말해본다. 청춘이여, 생각하고 도전하고 즐겨라. 하지만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자. 책임감을 느껴라. 우리는 성인이 된 이상 자신의 일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혹자는 책임감에 짓눌려서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마음을 가볍게 먹

는 것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 사실 나도 어떤 일을 맡게 되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할 때면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책임감에 스스로 부담감을 만들어나간다. 하지만 그 압박이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 또한 그런 압박을 이겨내기 위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고 그 경험이 다음 일에 대한 초석이 되어 다음 도전도 스스럼없이 해낼 수 있었다.

‘자기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은 어릴 적부터 귀에 못박히게 들어왔던 말이다. 그래서 더욱더 무언가 할 일이 생기면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게 되었다. 하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성인이 성인으로 서 지켜야 할 책임감을 스스로 미루두고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을 피부로 체감하게 된다.

아직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아홉 단어 ‘세월호’가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 사건이 시발점이 어디인가는 모른다. 자세한 전말 또한 알지 못한다. 하지만 사건이 터졌던 그 시점에서 어른들은, 그 많은 승

객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책임 질 의무가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기살기에 바빠 눈을 돌리고 자신의 길만 걸었다. 그 결과 우리의 새싹들은 어른들에 대한 기대와 원망을 하나씩 품고 어두운 바닷속으로 침잠했다.

부모로부터 버려진 아이들과 미혼모들을 보아도, 많은 이들이 어른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내려놓으면서도 어른으로서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려는 것 같은 생각도 든다. 우리 사회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무리들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앞으로 사회의 주축이 될 우리 청춘들은 만약 모르고 있었다면 이제부터 알아가고, 알고 있었다면 이제 잊지 않으려 한다. 우리는 스스로의 일에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그 책임을 회피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성인이라 말할 권리를 잃고, 그 화살이 떨어질수록 가깝게 든 우리에게 다시 돌아올 것임을, 청춘이여 생각하고 도전하자! 그리고 책임을 잊지 말자.

기고

요우커와 남도 ‘판시’



김명원 전남도 관광국장

한국을 방문하는 요우커(遊客, 중국인 관광객)는 2013년 432만명에서 올해는 6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한국관광공사는 추계하고 있다. 산업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중국관광객 총 지출액이 7조 6722억원이고,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272달러로 외국인 관광객 평균 지출액 1,684달러 보다 20% 상회한다. 이처럼 요우커들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중요한 고객임을 알 수 있다.

쇼핑시설이 많지 않은 전남은 요우커 유치에 불리하기만 할까? 물론 아니다. 그 이유가 몇 가지 있기 때문이다.

첫째, 중국과 전남과의 판시(關係, 관계)다. 중국인들은 판시를 중요시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판시는 주고 받음이 가능한 관계를 의미한다. 지난 7월 4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서울대 강연에서 언급한 수천년을 이어온 10명의 ‘한·중 우호 역사 인물’이 전남에 많다. 임진왜란 때 500척

의 전선과 5000명의 수군을 이끌고 와서 이순신 장군과 함께 왜구를 물리친 명나라 장수 진린(陳琳) 도독을 배향하고 있는 황조별묘(皇朝別廟)와 후손인 광동진씨 집성촌이 해남에 있다. ‘중국인민음악가’ 정율성(鄭律成) 선생이 어린 시절을 보냈던 곳이 화순이요, 중국 송나라가 원나라에 망하자 주자의 증손자 주잠(朱潛)이 동천하여 자리를 잡은 이래로 매년 배향하고 있는 주자묘(朱子廟)도 화순에 있다.

둘째, 전남에는 중국인이 좋아하는 매력있는 자원이 많다. 황차, 녹차 등 차를 6가지로 분류할 정도로 차문화가 발달한 중국이지만 중국 남부에만 차나무가 있고 북부에는 없는 녹차밭이 보성 산자락을 가득 뒤덮고 있다. 또한, 중국 내륙사 람들에게 특별한 6475km의 리아스식 해안이 있다. 무안국제공항을 통해 들어 온 요우커들이 목포 갯바위 선상 데크에서 정차 갯바위보다 바다를 배경으로 계속 해서 사진을 찍고 즐겨워하는 것을 보았다. 중국인에게 바다는 특별하고 매력적인 곳이며 틀림없다. 공룡화석지가 있는 여수 사도와 추도, 해질녘 섬 전체가 붉게 물드는 홍도 등 2219개의 섬은 국민의 절반이 바다를 못 본다는 그들에게는 색다른 풍경이 아닐 수 없다.

지난 9월 전남도가 주최한 동아시아관광컨퍼런스에서 기조강연한 중국사회과학원 관광연구소 장광루언(張廣瑞) 소장

이 언급한 관광자원도 전남 관광에 힘을 실어준다. 정율성, 보성녹차밭, 주자묘를 언급하고 나서 추가한 것이 여수국가산업단지의 야경이다. 대낮같이 밝은 조명과 불그스름한 바다의 석양은 새롭고 매력적이었다는 것이다. 산업관광을 즐기는 중국인에게 아주 훌륭한 관광상품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하나는 천연기념물인 진도갯대. 중국에 애완견을 키우는 노부부가 늘고 있고, 특히 중년 여성들에게 애완견이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에 진도갯대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가능성을 언급했다.

APEC 정상회의의 중 중국에서는 ‘APEC 블루(BLUE)’가 유행어가 되었다. 임시휴일로 스모그 현상을 줄여서 모처럼 베이징의 푸른 하늘을 봤다는 뜻이다. 전남은 공기중 산소음이온이 수도권보다 8배 많고, 햇빛은 20% 이상 많은 곳이다. 전남의 깨끗한 환경이아말로 요우커들의 도시 탈출 목적지로 적합한 곳이 아닐 수 없다.

셋째, 맛갈스러운 남도음식이다. 중국은 후난(湖南)성 출신 마오쩌둥이 중국의 공산화를 위해 정부군과 전쟁을 치르던 시절 먹었다는 삼겹살점(紅燒肉)부터 각성마다 특색있게 음식이 발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 식재료에 관한 신뢰도는 낮은 편이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미국 대표팀은 먹을 음식을 대량 공수하겠다고 밝히는 등 불신이었다. 얼마 전 해

이징에 문을 연 CJ 푸드빌에서는 제일제당의 고추장, 참기름, 불고기 양념 등 식재료가 잘 팔린다는 보도도 있었다. 전남은 친환경 농수산물, 풍부한 식재료가 강점이다. 중국인이 좋아하는 전복은 전국의 97% 이상 생산한다. 그들에게 안전하고 입맛을 돋울 음식이 시·군마다 있다.

전남은 요우커와 ‘판시’를 맺어가기 위해 해 분주하다. 요우커의 수요에 맞는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계층별, 타지 지역별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이낙연 도지사가 직접 나서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주자묘, 황조별묘 등 중국관련 유적을 잘 가꾸고 보존하면서 관광코스 를 마련할 계획이다. 요우커들의 편의를 위해 관광안내표지판을 정비하고 다문화 가족 등을 활용하여 외국어해설사 양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요우커들이 선호하는 쇼핑관광도 정신호가 커졌다. 광양에 L.F 프리미엄 패션아웃렛이 2016년 완공이 예정된 데 이어, 2017년에는 나주에 신세계 프리미엄 아웃렛이 들어선다.

홍보의 달인 스티브잡스가 “우리 분야에서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한 것처럼 전남도와 시·군, 관광업계 종사자들이 협력하고 요우커 개개인 과 판시를 맺는다는 자세로 잘 준비해 전남에 요우커들이 북적대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社說

새정치 당권 경쟁, 호남정치력 복원 기회로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년 2월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를 선출하게 됨에 따라 벌써부터 입지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차기 당 대표는 2년도 남지 않은 차기 총선에서 공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데다 다수의 후보가 당권 도전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문재인 의원의 출마가 표면화된 가운데 광주·전남에서는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과 3선인 박주선·김동철 의원, 전북에서는 정세균 의원의 도전이 기정사실화 되고 있으며 정동영 전 후보가 나와도 경쟁이 거거운 상태다.

하지만 후보가 난립할 경우 당 대표에 문 의원으로 압축되는 건 자명해진다.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연합의 최대 계파인 진노그룹의 사실상 최강자로서 그에 대항되는 비노그룹, 특히 호남에서 단일후보가 나와도 경쟁이 거거운 상태다. 지금 새정치연합에 대한 호남 민심은 심상치 않다. 지난 대선에서 패배와 6·

4 지방선거,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에도 끊임없는 계파싸움과 비전 없는 정치늬움, 호남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오히려 외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호남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지지 정당에 없다는 무당층이 39%로 새정치연합 지지율 38%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연합의 환골탈태는 호남의 정치력 복원에서 찾아야 한다. 계파 청산과 합리적 비전 제시 및 실천 등도 중요하지만 그를 통해 호남의 지지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그 영향력이 총정권 나아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으로 확산된 게 지금까지 정치현상이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호남 후보 간 단일화가 중요하다.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대권 후보와 당권도 분리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 공천권도 행사하고, 대권에도 나서겠다고 과욕을 부린다면 호남은 물론 국민에게 외면을 당할 것이다.

국립광주과학관 시민 상대 돈벌이 해서야

국립광주과학관이 ‘국립’이라는 명칭에 걸맞지 않게 관람객들에게 비싼 체험료를 받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과학관 측은 정부의 지원이 적어 운영을 위해선 시설이용비 등을 징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역 과학 꿈나무들의 산실이 되어야 할 국립과학관이 공익성은 뒷전인 채 돈벌이에 치중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다.

본보의 취재에 따르면 과학관을 찾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상시 전시시설 입장료(3000원)와 주차요금(2000원)을 지불한 뒤 3곳의 유료상영관 관람권(각 1500원)도 따로 구매해야 한다고 한다. 여기에 교육프로그램의 경우 2시간 체험에 1만 원, 많게는 7만4000원의 비용이 든다. 10주간 이뤄지는 장기 체험프로그램의 비용은 무려 20~30만 원이나 된다.

게다가 가볍지 않은 비용 탓에 어려운 결심을 한 뒤 교육 프로그램을 신청해도 접수 인원이 부족하면 교육은 취소되기도 일쑤다. 재료비와 강사료 등의 지출로 인한 적자를 막기 위해서라는 게 이유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올해 광주과학관 예산은 총 69억 원, 이중 자체 수입은 23.76%에 달한다. 국립대구과학관의 경우 87억6000만 원 중 자체 수입 비율이 19.3%인 것에 비추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또 광주시 지원금이 11억여 원인 점을 감안하면 시민 세금을 받아 운영하면서도 비싼 체험료를 받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립광주과학관이 최우선시 해야 하는 것은 공익성이다. 보다 많은 어린이들이 부담 없이 과학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부담없이 문을 활짝 열어줘야 할 의무가 있다.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과학관은 존재 이유가 없다. 당장 각종 체험료와 교육료를 과감히 내리되 예산 부족 문제는 정부 부처와 함께 해법을 모색하는 게 순리다.

無等鼓

남한에서 가장 춥다는 대성산과 화악산의 겨울 기온은 영하 20도가 보통이다. 1988년부터 1990년까지 근무했던 강원도 화천의 모 부대는 대성산과 화악산의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예비사단이라 1년의 절반 가량이 야전훈련이었다. 소총수와 같은 완전 군장(배낭)에 20kg이 넘는 90mm 무반동총을 더 매고 걸어야 하는 행군은 고난의 연속이었다.

게다가 겨울철에는 추위와도 싸워야 했다. 침낭을 처음 본

“야 잠 좀 자자”라는 플래카드가 퍼포먼스 목적을 대변했다. 잠을 자야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을 항변하는 젊은이들의 외침이었다.

88만 원 세대, 삼포세대(연애·결혼·출산 포기 세대)인 요즘 청년들은 치열한 경쟁 속에서 정작 꿈 꿀 기회조차 잃어버렸다. 어른들은 꿈을 꾸라고 말하지만 꿈을 말하면 “현실을 봐라” “언제 철 들래. 네가 그럴 때냐” “취업은 언제하려고” 라는 반응이 돌아온다.

번데기 프로젝트

이제미의 소설 ‘번데기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18살 소녀 정수선은 어려운 환경남도 출신이라 침낭을 볼 일이 없었다. 텐트에서 잘 때는 군복에 ‘깡깡이(숨웃)를 끼고 야전잠바까지 입은채 짐까지 올리고 잠을 청하는 모습이 마치 번데기 같았다. 신병에겐 잠낭이 주위와 고찰의 갖은 압박, 고된 훈련을 피해 꿈을 꿀 수 있는 안식처였다.

23일 광주 충장로 우체국 앞 길거리에 침낭이 등장했다. 청년 6명이 침낭 안에 들어가 자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 청년단체가 ‘번데기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벌이는 일종의 퍼포먼스였다.

이제미의 소설 ‘번데기 프로젝트’의 주인공인 18살 소녀 정수선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번데기처럼 웅크리고 있다가 소설가라는 꿈을 이뤘다. 이제미는 “사실 내 상황은 그렇게 비극적이지만은 않아. 봐 웃기잖아?” 라는 위로를 말을 건네고 싶어 이 소설을 썼다고 말했다.

번데기 프로젝트는 전국 주요 도시를 순회한 뒤 12월 초 서울로 돌아간 번데기가 결국 나비로 변하는 캠페인을 벌인다. 각자의 꿈을 적은 쪽지가 나비가 돼 활활 날아가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따뜻한 위트가 필요하다.

/장필수 정치부장 bungy@

청춘특독·기고 환영합니다

청춘특독·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